

제67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6월 8일)

일본 불교조각의 세계

이원진, 310호 일본실 18:00~18:30

세계문화관 일본실에서는 4월부터 <일본 불교조각의 세계>를 열어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불교조각품 다섯 점을 특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일본의 밀교, 정토교, 신불습합을 대표하는 12~13세기 불교조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처이면서도 보살의 모습을 한 대일여래좌상과 불교 존상이면서도 귀족 부부의 모습을 한 남신좌상·여신좌상은 한국에서 거의 제작되지 않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주목한 일본 불교조각의 특징은 한국의 불교조각품이 금동, 돌, 철 등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 진 데 비해, 일본의 주요 불상들은 거의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는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794~1192)부터 목조불木造佛이 중심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 이 시기부터 불상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구리나 인도·동남아시아에서만 자라는 전단나무 같은 기존의 값비싼 재료를 대체하기 위해 일본에서 자생하면서 가장 구하기 쉬운 나무를 사용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일본에서는 오래된 나무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영목신앙靈木信仰’이 있었습니다. 신령스러운 나무에 부처의 모습을 새겨 드러낸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나무가 불교조각의 주재료로 자리잡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놓인 불교조각품은 일본에서 팔백 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지내는 동안 많은 이들에게 위안과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의 행복과 안위를 비는 마음은 오늘날의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먼 바다를 건너 우리를 찾아온 부처와 만나, 그 염원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림1. 목조대일여래좌상, 12세기, 나무, 칠, 높이 96.0cm,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특별전<아스테카,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5)

정현,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아스테카’는 마야와 잉카와 함께 아메리카 대륙 3대 문명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아스테카는 우리에게 꽤 낯섭니다. 그들의 역사와 문화 대신, 전쟁과 인신공양의 잔혹한 이미지와 스페인 정복자를 자신의 신으로 오해한 멸망 이야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소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 가운데 하나였으며 견고한 통치체제 위에서 번영하였습니다. 활발한 정복 활동과 공물 시스템은 메소아메리카 전역을 하나로 연결하였으며, 예술과 지식의 발전도 상당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아스테카를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그동안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아스테카의 역사와 문화의 실제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최근 연구와 발굴 조사 결과, 아스테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아메리카 대륙 침략을 정당화하고 새로운 종교를 강요하였던 유럽 정복자의 과장과 왜곡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시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잔혹함으로 치부하였던 그들의 희생제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스테카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시스템은 그들의 독특하고 복잡한 세계관과 우주관을 바탕으로 합니다. 아스테카 사람들은 신들의 희생으로 태양과 세상이 탄생하고 올바르게 작동한다고 여겼으며, 인간 역시 이러한 신들 덕분에 존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전시에서는 먼저 아스테카 사회를 지배하였던 그들의 세계관을 소개한 뒤 자연, 경제, 전쟁, 정치, 예술, 지식, 제의 순으로 아스테카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봅니다. 이번 전시가 그동안 역사와 신화가 혼재하고 과장과 왜곡으로 가려졌던 아스테카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림1. 지하세계의 신
믹틀란테쿠틀리



그림2. 비와 풍요의 신
찰치우틀리구에 화로



그림3. 비의 신
틀랄록을 그린 항아리



그림4. 바람의 신
에에카틀

과학으로 살펴보는 조선 불교회화의 채색안료

고수린, 203호 불교회화실 19:00~19:30

유물을 바라보는 시선은 관찰자의 관심도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유물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는 탐미적인 시선, 제작 양식 등을 연구하고 그 시대에 제작된 유물들의 특징을 살피는 미술사학적인 시선, 유물이 가진 시대적 상황을 조명하는 역사학적인 시선 등이 있으며, 그 중에는 과학적으로 유물을 조사하여 유물의 제작과정이나 재료적인 특징들을 밝혀내는 시선도 있습니다.

오랜 옛날에는 그림을 그릴 때 먹, 연백, 호분, 석황, 진사 등과 같이 자연에서 쉽게 채취하여 가공할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채색 재료들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천연 재료를 가공해서 사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화학적으로 합성한 다채로운 색상의 안료들이 등장합니다. 합성 안료는 대체적으로 천연 재료들에 비해 내구성이나 사용성에 있어서 성능이 좋습니다. 또한, 값 비싼 천연 안료의 대체품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경제적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합성 안료는 제작 시기가 어느 정도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유물이 제작된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불교회화실에 전시되어 있는 조선 후기 승려 화가 '신겸'이 그린 불화와 시왕도에서는 스몰트(smalt)라는 청색 안료가 관찰됩니다. 이 안료는 16세기 중반부터 유럽에서 사용된 기록이 있는 코발트(Co)의 합성 산화물로, X선 형광분석으로 조사했을 때 코발트, 규소(Si), 포타쉬(K), 비소(As)와 같은 원소들이 검출됩니다. 주로 17-19세기 조선 회화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분석을 통해서 스몰트가 확인되어 해당 유물들의 제작시기를 과학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1. 스몰트 안료



그림2. XRF 안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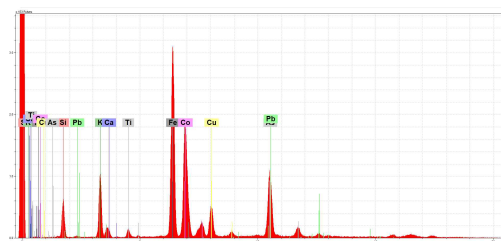


그림3. 스몰트의 XRF 스펙트럼

제677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2년 6월 8일)

암행어사暗行御史: 조선의 비밀 감찰관

허문행, 119호 조선III실 19:00~19:30

조선시대 ‘암행어사暗行御史’는 백성의 고충을 살피고 관리의 비리를 적발하는 비밀 감찰관이었습니다. 암행은 신분을 감추고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암행어사는 수의繡衣 또는 직지直指로도 불리었습니다.

‘암행어사’는 16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해 19세기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를 가장 많이 파견한 임금은 숙종肅宗(1674~1720)이었습니다. 46년의 재위 기간 중 146차례나 암행어사를 보냈습니다.

암행어사는 높은 직책의 벼슬은 아니었지만 임금에게 보고 들은 바를 직접 아를 수 있었고, 상황에 따라 관리의 임무를 정지시킬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임금의 총애를 받아 이후 높은 벼슬에 오르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박문수朴文秀(1691~1756), 정약용丁若鏞(1762~1836), 김정희金正喜(1786~1856)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암행어사와 관련한 유물로는 <마패>, <사목>, <유척>등이 있습니다.

- 마패馬牌: 역참에서 말을 빌릴 때 필요한 증표. 어사의 인장印章으로도 사용
- 사목事目: 암행어사의 권한과 임무를 명시한 문서.
- 유척鑰尺: 낫쇠로 만든 자. 저울이나 형구의 규격에 맞는지 점검하는 용도.



그림1. 마패(남산 747) 중 일부



그림2. 유척(신수 492)